



# 데이터도그 (DDOG.US)

‘성장’ 구간을 넘어 ‘이익’ 구간으로

- 데이터도그는 클라우드·앱을 모니터링해 장애 탐지 및 원인을 분석하는 플랫폼 기업
- FY4Q25 매출은 YoY +29% 성장했고, FY25에서 순이익 YoY가 처음 (+)로 전환됨
- AI로 운영 복잡성이 늘며 대형 고객 확장이 이어져 긍정적 성장이 기대됨

## FY4Q25 실적 Review

FY4Q25(12 월말) 실적은 매출액 9.53 억 달러(YoY +29.2%, QoQ +7.6%, 컨센서스 대비 +3.9%), 영업이익률 24.1%(YoY -0.1%p, QoQ +0.7%p, 컨센서스 대비 +0.1%p), EPS 0.59 달러(YoY +20.4%, QoQ +7.3%, 컨센서스 대비 +5.4%)를 기록했다.

## ‘이익 구간’으로 진입

동사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과 인프라의 상태를 한 화면에서 관측·진단·대응하도록 돕는 플랫폼 기업. 대규모 클라우드/앱을 운영하는 기업일 경우 업종과 무관하게 동사의 플랫폼을 빠르게 도입하고 있음. 실제로 공식 고객 사례엔 제조·리테일·에너지·물류·테크가 혼재되어 있음. 이번 FY4Q25 매출은 9.5 억 달러로 YoY +29% 성장하며 가이던스 상단을 초과했고, 총이익률(GPM)은 81.4%의 높은 수준을 유지. 특히 FY25 내에서 순이익 YoY 가 처음으로 + 구간에 진입했다는 점은 “성장→이익” 전환이 가시화된 신호로 판단. R&D 의 YoY 성장률이 +30.6%로 여전히 높았지만, 매출총이익(YoY +29%) 상승이 이를 견인. 전체 부채 변화를 역시 YoY -5.2%를 기록해 FY25 내에서 처음 - 전환.

## 매출의 ‘양’보다는 ‘질’에 초점

긍정적 실적의 핵심은 고객 수 증가(전년비 +0.27 만 명)보다는 “계약 규모 상향”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남. 4Q 에만 TCV(총 계약 가치) 1,000 만 달러 이상 계약을 18 건 체결했고, 이 중 2 건은 1 억 달러 이상으로 확인됨. 특히 AI 관련 기업과 8 자릿수 신규 계약이 체결된 점은, AI 인프라/플랫폼 계층에서 동사 솔루션이 필수 운영 톨로 채택되고 있음을 방증. ARR 10 만 달러 이상 고객도 4,310 명으로 늘어나며 전체 ARR 의 90%를 차지했고, 백만 달러 이상의 초대형 고객수도 YoY +31% 늘어난 603 개를 기록. AI 모델 기업 및 대형 고객 중심의 실적 확장성이 확인된 구간. 나아가 고객 충성도 관점에서 작년에 데이터독을 썼던 고객 100 명 중 90 명 이상이 재계약을 했고(GRR 90%), 기존 고객들 대상 매출은 20% 늘어난(NRR 120%) 성과를 달성. AWS 와의 전략적 협업을 확대하여 멀티클라우드 환경 최적화에 기여한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됨.

## ▶ 현재주가 / 목표주가 컨센서스

현재주가('26.02.10): \$129.67

목표주가 컨센서스: \$185.57

## ▶ 투자 의견 컨센서스

매수	보유	매도
90%	8%	2%

## Stock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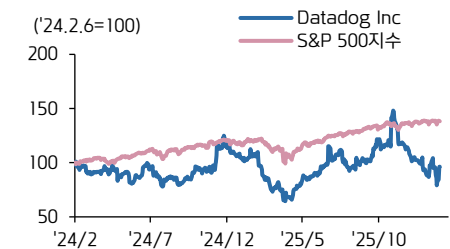
산업분류	소프트웨어
S&P 500 (02/10)	6,941.81
현재주가/목표주가	129.67 / 185.57
52주 최고/최저 (\$)	201.69 / 81.63
시가총액 (백만\$)	45,719
유통주식 수 (백만)	328
일평균거래량 (3M)	5,124,724

## Earnings & Valuation

(백만 \$)	FY24	FY25	FY26E	FY27E
매출액	2,684	3,427	4,119	4,925
영업이익	674	768	912	1,153
OPM(%)	25.1	22.4	22.1	23.4
순이익	654	747	842	1,048
EPS	1.82	2.05	2.26	2.75
증가율(%)	37.9	12.6	10.2	21.6
PER(배)	272.2	427.6	57.4	47.2
PBR(배)	18.0	12.8	10.1	8.3
ROE(%)	7.8	3.3	14.3	14.6
배당수익률(%)	-	-	0.0	0.0

## Performance & Price Trend

주가수익률 (%)	YTD	1M	6M	12M
절대	-4.6	3.3	0.7	-10.8
S&P Index	1.4	-0.4	8.9	14.4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컨센서스는 2026-02-10 블룸버그 기준, Non-GAAP 기준

### 대형 기업들의 선택을 받는 이유

초대형 고객군에서 계약이 커지고 성장률이 유지되는 구조적 이유는 AI 가 개발 속도를 높임과 동시에 운영 복잡성을 폭증시키는 메커니즘에서 도출됨. 코드 작성 자체가 빨라질수록 서비스 수, 배포 빈도, 트래픽 패턴의 변동성이 커지고, 그 결과 장애 탐지, 원인 규명, 복구의 난이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구조가 발생. 이에 따라 안정적 시스템 운영 및 오류 관측 틀은 비용 항목이라기보다 가동률과 엔지니어 효율을 좌우하는 운영 인프라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고 판단. 동사 플랫폼 채택률 (고객의 84%가 2 개 이상 제품, 33%가 6 개 이상 제품 사용)은 멀티제품 확장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구조이며, 동사의 툴 통합을 통해 총비용(TCO)을 낮출 수 있다는 논리도 향후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이유. 인프라 모니터링(1.6B ARR), 로그 관리(1B ARR), APM(1B ARR)이라는 3 개의 항목을 동시에 발전시켰고, 특히 소프트웨어의 응답 속도와 버그를 관리하는 APM 이 YoY +30% 중반대로 가속 성장을 보여줌. 이는 애플리케이션 복잡성 증가 및 AI 발전이 오히려 수요를 견인하고 있음을 시사. 나아가 AI 네이티브 고객을 제외한 일반 비즈니스에서도 매출 성장률이 YoY +23%로 가속화(Q3 20%)된 점은, 동사의 성장 동력이 AI 고객군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

### LLM에 대체될 가능성은?

물론 LLM 및 Agentic AI 의 발전이 동사의 기능을 대체할 것이란 우려 역시 잔존. 다만, 동사는 오히려 이러한 흐름이 자사 플랫폼을 구조적으로 지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주장. LLM 이 똑똑해져도,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언제 어디서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최신 컨텍스트 데이터가 필요. 다만, 현실 데이터는 흩어져 있고 지저분해서 실시간 수집·정제·구조화하는 레이어가 필수적이며, 동사는 이러한 컨텍스트 레이어(데이터 수집·구조화 능력)를 보유. 이에 따라, 오히려 LLM 확산될 경우 동사의 컨텍스트 레이어 기반 플랫폼 수요가 커질 수 있음.

운영 방식이 사후 분석에서 실시간 대응으로 이동할수록, 핵심 경쟁력은 LLM 자체 성능보다 대규모 실시간 데이터 처리, 이벤트 간 상관관계 분석, 자동화된 실행 역량으로 수렴될 것이라 동사는 주장. 동사 플랫폼은 단순히 답변을 생성하는 AI 가 아니라 “탐지→원인 규명→조치”까지 이어지는 운영 자동화 체계인 만큼 운영 방식 측면에서도 유리할 것이라 주장. 또한 AI 에이전트가 확산될수록, 에이전트 자체도 새로운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만큼 운영 환경은 ‘사람이 보는 UI’만으로는 불충분해질 가능성이 높음. 이런 관점에서 동사가 인간 UI 뿐 아니라 에이전트가 직접 호출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려는 전략은, 사람이 개입하는 구간과 에이전트가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구간이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운영 환경에서 채택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

동사는 Bits AI SRE 를 통해 오류 조사 시간을 1 시간에서 5 분으로 단축한 사례를 언급하며 수치적 성과가 뚜렷함을 밝힘. 향후 LLM 만능주의에 따른 우려는 지속될 수 있겠으나, 대형 고객과의 계약 체결, 데이터 레이어 확보에 따른 경쟁력 유지, 성장 → 이익 전환 모멘텀 등을 감안할 때 긍정적 흐름을 연출할 것으로 전망.

데이터도그 FY25 4Q ('25.10.01~12.31)

구분 (백만 USD)	FY25 4Q	컨센서스 비교		YoY 비교		QoQ 비교	
	발표치	컨센서스	차이	FY24 4Q	성장률	FY25 3Q	성장률
매출액	953	917	3.9%	738	29.2%	886	7.6%
영업이익	230	221	4.3%	179	28.4%	207	10.9%
영업이익률(%)	24.1	24.1%	0.1%p	24.3%	-0.1%p	23.4%	0.7%p
순이익	217	203	6.9%	178	22.5%	197	10.1%
EPS (USD)	0.59	0.56	5.4%	0.49	20.4%	0.55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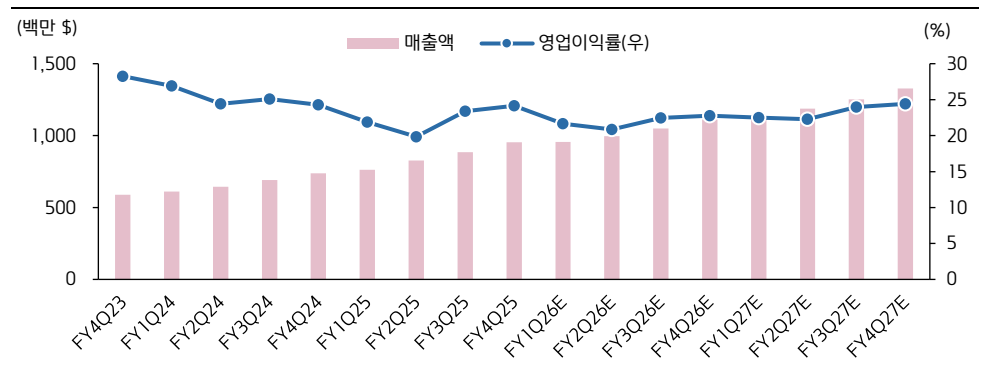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컨센서스는 2026-02-10 블룸버그 기준, Non-GAAP 기준

데이터도그 향후 실적 컨센서스 표

구분 (백만 USD)	분기 컨센서스				연간 컨센서스			
	FY26Q1	YoY 성장률	FY26Q2	YoY 성장률	FY26	YoY 성장률	FY27	YoY 성장률
매출액	955	25.5%	996	20.4%	4,119	20.2%	4,925	19.6%
영업이익	207	24.3%	208	26.6%	912	18.8%	1,153	26.4%
영업이익률(%)	21.7%	-0.2%p	20.9%	1.0%p	22.1%	-0.3%p	23.4%	1.3%p
순이익	190	12.9%	193	17.7%	842	12.8%	1,048	24.5%
EPS (USD)	0.52	13.3%	0.52	12.6%	2.26	10.2%	2.75	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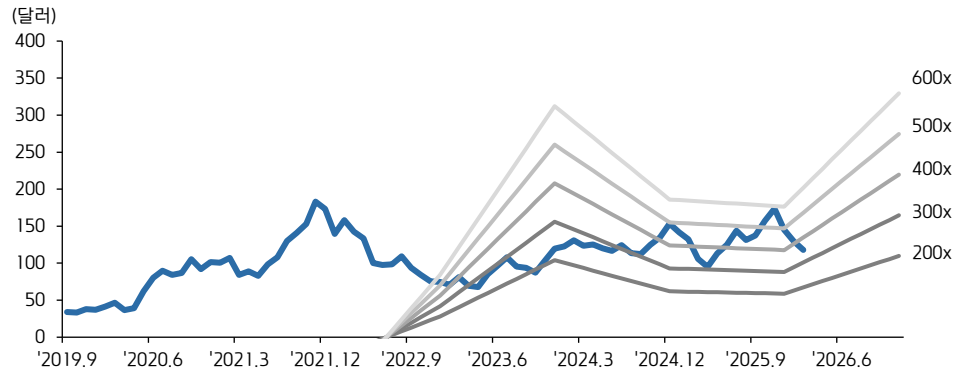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컨센서스는 2026-02-10 블룸버그 기준, Non-GAAP 기준

데이터도그 분기 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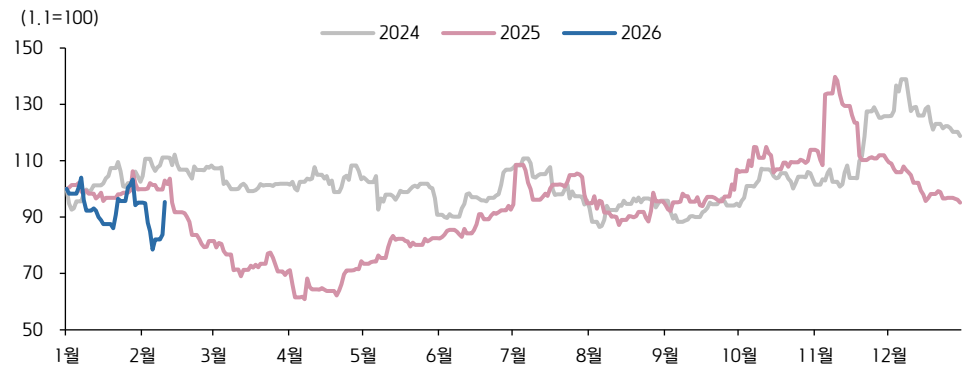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컨센서스는 2026-02-10 블룸버그 기준, Non-GAAP 기준

데이터도그 12M FWD PER 밴드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컨센서스는 2026-02-10 블룸버그 기준, Non-GAAP 기준

데이터도그 최근 3개년 연도별 주가 추이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데이터도그 상세 실적표

(백만 달러)	FY4Q24	FY3Q25	FY4Q25	YoY(%)	QoQ(%)
<b>[GAAP]</b>					
매출액	738	886	953	29.2	7.6
매출원가	144	176	187	29.6	5.9
매출총이익	594	709	766	29.1	8.1
영업비용	584	715	757	29.6	5.9
R&D	316	402	418	32.1	4.0
세일즈&마케팅	208	239	264	27.1	10.7
G&A	60	74	75	24.6	0.5
영업이익	9	(6)	9	-0.4	흑전
이자비용	3	2	3	-1.6	7.4
이자 및 기타 수익	47	44	47	-0.8	6.4
세전이익	54	36	53	-0.7	49.9
법인세비용	8	2	7		
순이익	46	34	47	2.1	37.4
회석 EPS(달러/주)	0.13	0.10	0.13	0.0	30.0
회석 가중평균주수(백만주)	361	362	366	1.3	1.0
<b>[Non-GAAP]</b>					
매출총이익	603	719	776	28.8	8.0
GPM(%)	81.7	81.2	81.4	-0.3%p	0.3%p
영업이익	179	207	230	28.4	10.9
OPM(%)	24.3	23.4	24.1	-0.1%p	0.7%p
EPS(달러/주)	0.49	0.55	0.59	20.4	7.3
<b>[영업데이터]</b>					
ARR 백만 달러 이상 고객 수(명)	462	-	603	30.5	-
ARR 십만 달러 이상 고객 수(명)	3,610	4,060	4,310	19.4	6.2

자료: 데이터도그,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